

# 2010년도 시멘트 결산서

김 의 철 (한국양회공업협회 기획팀 과장)

## 1. 2010년 국내 경제동향

금년의 한국경제는 세계 금융위기의 충격에서 점차 벗어나며 빠른 회복세를 보였으며 하반기 이후 성장속도가 둔화되기는 하였지만 수출과 내수가 견실한 회복세를 나타내면서 연간으로 볼 때 5%대 후반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특히, 상반기 중에는 전년동기대비 7.6%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세계경기의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어 그간 높은 성장세를 보였던 수출 및 투자의 성장세 둔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부문별로 국내경제를 살펴볼 때 민간소비는 소득 및 고용상황 등의 전반적인 경제여건이 개선되는 가운데 4%대 후반의 증가세를 실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설비투자는 기업의 수익성 개선 및 환율 안정에 따라 투자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17%대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시멘트산업과 관련성이 높은 건설투자는 민간부분의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SOC 등 공공부분의 투자 감소까지 더해져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우리 경제는 수출 호조 및 소비, 설비투자 증가 등에 힘입어 당분간은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이며 대외여건에 있어서도 글로벌 환율여건의 불확실성이 축소되었으나, 주요국의 경기 회복세 둔화 가능성, 유럽국가 재정문제 등 아직까지도 불확실한 경제 여건을 감안한다면 정부의 출구전략

은 보다 신중하게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분양주택의 누적과 부동산 경기의 하향기대 등으로 건설시장 및 부동산 경기가 중장기적으로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내년도 정부의 SOC예산 삭감까지 더해지며 시멘트산업 등 건설관련 산업전반에 있어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관련 산업의 보호를 위한 정부의 적절한 대책이 요구되어 진다.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통한 공급위주의 정책은 재검토가 불가피하며 수요측면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시장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실익보다는 부작용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 DTI, LTV 등 금융 규제완화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을 통해 시장의 자율적 기능에 중점을 둔 정책 변화가 기대되는 시점이다.

## 2. 2010년 국내 건설동향

세계경제의 회복과 함께 지난해 하반기부터 점차 회복세를 보였던 국내 건설경기는 올해 들어서 공공부분의 재정투자 축소와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민간부분의 회복지연으로 다시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금년 상반기에는 세계 및 국내경기 회복의 훈풍을 타고 각종 건설지표들이 반등하는 듯 보였지만 작년에 경기부양 차원에서 이루어진 재정투자 효과가 상반기 조기집행 이후 소진되면서 하반기부터는 건설투자와 수주가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고, 정부의

〈표-1〉 연도별 건축허가 동향

(단위 : 천㎡, %)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1~10월		
					전년대비	전년대비	
용도별	주거용	53,861	65,212	38,462	41,917	28,500	121.6
	상업용	32,570	35,739	33,265	24,399	21,606	111.3
	공업용	16,813	16,351	18,504	11,542	12,775	141.3
	교육사회	11,340	12,268	13,588	11,262	9,638	105.8
	기타	18,687	21,387	16,839	16,017	15,143	123.2
구조별	철골조	131,064	147,838	117,843	102,487	85,468	120.2
	조적조	1,626	2,176	1,950	1,755	1,417	95.5
	목조	474	750	819	839	724	107.1
	기타	107	193	46	56	54	120.0
합계	133,271	150,957	120,658	105,137	87,662	119.6	

주) 자료 : 국토해양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일부 규제완화 모습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은 장기 침체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건축허가면적은 건설(건축/토목)부분 중 민간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축부분의 건설투자 선행 지표로서 건설경제동향, 주택수급동향 등의 진단 및 건축자재 수급·생산 예측을 위한 기초 통계자료이나 통계적 기저효과에 의해 매년 4/4분기에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는데 이는 착공시기 결정에 따른 사업승인 신청시점이 아파트의 경우 착공시기가 가장 유리한 1/4분기 또는 2/4분기를 고려하여 전년도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신청되기 때문에 하반기 특히, 4/4분기에 규칙적으로 건축허가면적이 크게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금년의 건축허가 면적을 월별로 살펴보면 1월(33.3% ↑), 2월(37.4% ↑), 3월(37.8% ↑), 4월(64.7% ↑), 5월(72.7% ↑), 6월(14.0% ↑), 7월(1.7% ↑), 8월(4.7% ↓), 9월(33.3% ↓), 10월(15.9% ↑)으로 1~10월 누계치는 87,662천㎡로 전년동기의 73,293천㎡ 보다 19.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2008년 이전 수준(2001~2008년 1~10월 평균 101,224㎡)에는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

타났다.〈표-1〉

용도별로는 주거용(28,500천㎡, 21.6% ↑), 상업용(21,606천㎡, 11.3% ↑), 공업용(12,775천㎡, 41.3% ↑), 교육사회용(9,638천㎡, 5.8% ↑), 기타(15,143천㎡, 23.2% ↑)으로 전년에 가장 큰 감소를 보였던 공업용의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착공이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건축주는 허가권자에게 그 공사계획을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며 이러한 실적을 집계한 건축착공면적은 건설경기 동행지표로서 건설경제동향, 자재수급동향 등을 예측해볼 수 있는 통계자료로 활용되며 통상적으로 통계적 기저효과에 의해 매년 2/4분기에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기온이 낮아지는 4/4분기 및 1/4분기에는 착공면적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금년의 건축착공면적을 보면 먼저 용도별에서 주거용(21,135천㎡, 26.1% ↑), 상업용(17,027천㎡, 18.7% ↑), 공업용(12,276천㎡, 48.9% ↑), 교육사회용(6,692천㎡, 1.5% ↑), 기타(11,937천㎡, 19.6% ↑)으로 1~10월 누계치는 69,066천㎡로 전

〈표-2〉 연도별 건축착공 동향

(단위 : 천㎡, %)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1~10월		
					2010년 1~10월	전년대비	
용도별	주거용	28,433	32,744	15,663	22,259	21,135	126.1
	상업용	20,970	25,171	23,620	17,807	17,027	118.7
	공업용	15,080	16,154	16,640	10,559	12,276	148.9
	교육사회	7,530	8,683	8,965	7,672	6,692	101.5
	기타	12,857	13,898	10,306	12,954	11,937	119.6
구조별	철골조	83,382	94,573	73,123	69,240	67,243	124.0
	조적조	1,086	1,326	1,364	1,229	1,133	106.9
	목조	365	591	665	735	643	108.0
	기타	37	160	42	47	47	128.6
합계	84,870	96,650	75,194	71,251	69,066	123.5	

주) 자료 : 국토해양부

년 동기대비 23.5% 증가하였다. 건축착공이 증가한 것은 주택건설경기 회복에 의한 것이 아니라 2008년 감소에 따른 통계적 반동의 의미로 볼 수 있다. 한편 주거용 건축착공면적은 21,135천㎡로 2008년 이전 수준(2001년~2008년 1~10월 누적 평균 27,067천㎡)에는 미치지 못하였으나, 비주거용 착공면적은 47,931천㎡로 예년 수준(2001년~2008년 1~10월 누적 평균 43,870천㎡) 이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표-2〉

건설수주액은 경상금액으로 실질금액 분석을 위해서는 물가변동요인의 감안이 필요하고 대규모 건설수주가 불규칙하게 발생함에 따라 다른 경제지표에 비해 월별 진폭이 크게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으나 건축허가 지표와 함께 향후 경기국면을 나타내주는 선행지표로서 국내건설경기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금년 10월까지의 국내건설공사 총수주액은 전년 동기대비 13.7% 감소한 64조 5,090억원으로 파악되었다. 발주자별로 건설수주를 살펴보면 공공수주는 작년 상반기 SOC예산 조기 집행에 의한 재정효과로 동기간의 실적이 높았던 영향으로 전년 동기대비 48.8% 감소한 반면 민간수주는 전년 상반기

실적부진에 따른 기저효과와 최근 재건축·재개발 수주의 증가로 인해 38.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발주자별로 극심한 대조를 보였다.〈표-3〉

공종별로는 건축공사가 41조 1,290억원으로 전년 대비 19.0% 증가하였으나 토목공사는 23조 3,790억원으로 전년대비 31.0% 감소하였으며 정부의 SOC 예산 축소 방침에 따라 공공·토목의 약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 3. 시멘트 수급동향

#### 가. 내수

시멘트는 주로 건설공사에 사용되어 건설경기에 가장 큰 영향을 받으며 아울러 외적요인인 일기(날씨)도 건설경기와 마찬가지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건설경기와 일기에 따라 시멘트 수요도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일기의 경우 평년의 연강수량이 1,400mm 정도이고 북태평양 서부에서 연중 28개 정도 발생하는 태풍은 이중 2~3개가 우리나라에 직·간접의 영향을 미치는데 금년은 11월까지 발생한 14개의 태풍 가

〈표-3〉 연도별 건설수주 동향

(단위 : 십억원, %)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1~10월		
					전년대비		
발주자별	공공	20,460	28,695	31,559	50,771	22,214	58.8
	민간	66,550	77,554	66,440	51,914	39,026	138.6
	제조업	9,740	10,615	16,686	9,106	9,482	164.9
	비제조업	56,810	66,939	49,754	42,809	29,544	132.0
	민자	3,888	5,968	5,753	3,900	3,129	146.1
	국내외국기관	103	285	155	425	140	38.4
공사종류별	건축	69,573	82,442	69,776	58,583	41,129	119.0
	주택	52,756	58,409	44,679	38,959	23,763	113.1
	비주택	16,818	24,033	25,097	19,624	17,366	128.6
	토목	21,428	30,060	34,131	48,428	23,379	69.0
합계	91,001	112,502	103,907	107,011	64,509	86.3	

주) 자료 : 통계청

운데 큰 영향을 준 경우는 다행히도 없었다. 강수량은 11월까지 2,027mm(서울 기준)로 동기간의 평년값(30년간의 평균강수량) 1,344mm와 비교할 경우 50.8%, 전년 동기간의 1,542mm와 비교할 경우에도 강수량이 약 31.5%나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년 3분기에는 기록적인 폭염과 강수량을 보이면서 전반적인 일기조건은 전년과 평년 수준을 밑도는 것으로 판단된다.

내수의 분기별 전년대비 증감율을 살펴보면 1/4분기 11.8% ↓, 2/4분기 1.8% ↓, 3/4분기 18.8% ↓, 4/4분기 9.0% ↑ 등으로 예상되어 연간으로는 전년보다 5.5% 감소한 45,800천톤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표-4>)

### (1) 계절별 출하실적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중위도 온대성 기후대에 위치하여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사계절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봄과 가을에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고 건조한 날이 많고, 여름에는 고온 다습한 북태평양 가장자리에 들어 무더운 날씨를 보이며 겨울에는 한랭 건조한 대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춥고

건조하다. 이러한 기후 변화 속에 연중 건설공사는 봄과 가을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으며 여름은 우기, 겨울은 혹한으로 비수기가 되는 등 계절과 일기의 상태에 따라 시멘트의 소비도 유동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겠다.

최근 10년간 출하의 계절지수를 살펴보면, 연간 평균치를 100으로 볼 때 1월과 2월은 동절기의 혹한으로 인한 공사 감소로 계절지수가 약 60%선에 그쳐 비수기임을 확연히 보여주고 있으며, 3~6월로 이어지는 2/4분기와 10~11월이 연중 성수기에 해당하고 12월은 100선에 위치하여 평균정도의 출하수준을 보이고 있다.(<표-5>)

한편 분기별 출하구성비는 1/4분기 18.9%, 2/4분기 29.1%, 3/4분기 23.9%, 4/4분기 28.1%로 2/4분기가 가장 높았고, 반기별로는 상반기 48.0%, 하반기 52.0%인 것으로 나타났다.

### (2) 수요별·품종별 출하실적

금년도 시멘트 내수의 수요별 실적은 10월까지 37,135천톤중 민수가 36,823천톤으로 99.2%를 차지하였으며 관수는 0.8%인 312천톤을 내보낸 것으로

〈표-4〉 2010년 시멘트 수급실적

(단위: 천톤, %)

구 분	수 요			공 급			재 고
	내 수	수 출	계	생 산	수 입	계	
1/4 분기	8,467 (88.2)	565	9,032	8,764 (88.7)	221	8,985	1,376
2/4 분기	13,878 (98.2)	760	14,638	14,569 (98.1)	232	14,801	1,541
상 반 기	22,345 (94.1)	1,325	23,670	23,333 (94.4)	453	23,786	
3/4 분기	10,216 (81.2)	820	11,036	10,783 (85.3)	160	10,943	1,448
4/4 분기	13,239 (109.0)	555	13,794	13,284 (104.1)	187	13,471	1,125
하 반 기	23,455 (94.8)	1,375	24,830	24,067 (94.7)	347	24,414	
합 계	45,800 (94.5)	2,700	48,500	47,400 (94.6)	800	48,200	

주) 11월은 속보치, 12월은 추정, 크링카 수출 4,600천톤 별도. ( )는 전년동기대비.

나타났다. 이처럼 민수비중이 높은 것은 공공공사의 자재수급이 건설회사가 자체 조달하여 시공하는 형태로 바뀌고 있고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투자에 있어 민자유치를 적극 활용함에 따른 현상으로 볼 수 있다. (〈표-6〉)

한편 품종별 출하실적을 살펴보면 벌크 출하는 수입시멘트를 포함하여 10월까지 34,654천톤으로 전체 출하의 93.3%를 차지하고 있으며 포장 출하는 6.7%인 2,481천톤을 소비하는데 그친 것을 볼 수 있다.

시멘트 벌크화율 추이를 보면 1970년 3.0%에 불과하던 것이 1980년 21.3%, 1990년 68.5%, 2000년

88.9%, 2010년 93.3%로 나타나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증가의 원인으로는 레미콘의 사용이 대규모 건설공사는 물론이고 소규모 건설현장에서도 일반화된 시멘트 소비 형태로 변화된 데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나. 생 산

시멘트는 원재료인 석회석을 광산에서 채광하여 분쇄 및 소성과정을 거쳐 중간제품인 크링카로 만든 다음 석고 등의 첨가제를 넣고 미분쇄하여 최종적으로 시멘트라는 완제품으로 생산되어진다.

〈표-5〉 최근 10년간(2001년~2010년) 시멘트 내수의 계절지수 및 구성비

(단위: %)

구 분	1월	2월	3월	1/4분기	4월	5월	6월	2/4분기	상반기	7월	8월	9월	3/4분기	10월	11월	12월	4/4분기	하반기
계절지수	58.5	62.0	105.8	75.5	119.1	119.0	111.6	116.6	96.0	92.4	94.9	99.93	95.8	115.8	120.3	100.7	112.2	104.0
구성비	4.9	5.2	8.8	18.9	9.9	9.9	9.3	29.1	48.0	7.7	7.9	8.3	23.9	9.7	10.0	8.4	28.1	52.0

〈표-6〉 연도별·수요별·품종별 출하실적

(단위 : 천톤, %)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1~10월		
						전년대비	
수요별	민수	47,852	50,221	50,284	47,983	36,823	92.2
	관수	534	580	353	487	312	75.4
	민수비중	98.9	98.9	99.3	99.0	99.2	
품종별	포장	3,744	3,725	3,373	3,043	2,481	97.1
	별크	44,642	47,076	47,264	45,427	34,654	91.7
	별크화율	92.3	92.7	93.3	93.7	93.3	
합계	48,386	50,801	50,637	48,470	37,135	92.0	

올해 크링카 생산은 시멘트 국내소비가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큰 폭의 호조를 보여 전년 수준인 44,700천톤을 생산할 것으로 예상되며, 분기별로는 1/4분기 9,054천톤(7.8% ↑), 2/4분기 13,121천톤(0.1% ↑), 3/4분기 10,545천톤(8.1% ↓), 4/4분기 11,980천톤(1.5% ↑)의 실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완제품인 시멘트 생산은 1/4분기 8,764천톤(11.3% ↓), 2/4분기 14,569천톤(1.9% ↓), 3/4분기 10,783천톤(14.7% ↓), 4/4분기 13,284천톤(4.1% ↑)으로 연간으로는 전년보다 5.4% 감소한 47,400천톤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금년 가동율은 72.2%로 예상되어 전년의 72.4%보다 감소하였고 업계 최대 가동율을 보인 1997년의 94.7%와 비교할 경우 업계의 어려움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겠다.

#### 다. 수출입

올해 11월까지의 수출은 6,787천톤으로 전년 동기기간과 비교할 때 63.5%나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수요 감소에 따라 국내 업체들이 수출에 주력한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미국과 일본으로의 수출을 살펴볼 때 미국은 세계경기 회복의 영향으로 증가했으나 일본에 대한 수출은 자국내 수

요 감소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수출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주요 수출대상국인 두나라에 대한 수출 점유율은 올해의 괄목할만한 수출증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의 34.0%에서 금년 들어 20.1%로 비중이 오히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새로운 수출활로를 시장 여건이 좋은 방글라데시와 앙골라, 나이지리아, 페루 등 신흥 아시아 일부 국가와 아프리카, 남미로 확장함에 따라 올해 수출량 증가의 원동력이 된 것으로 보인다.

금년도 수출대상국은 총 24개국으로 전년의 21개국과 비교 시 3개국이 늘어났으며 대륙별로 수출실적을 분석해보면 아시아 71.7%, 유럽 19.3%, 아메리카 45.3%, 아프리카 80.9%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질적·양적인 측면 모두에서 수출이 호조를 보인 것으로 파악되었다.〈표-7〉

품종별로 보면 시멘트는 2,700천톤으로 전년대비 8.6%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며 크링카는 4,600천톤으로 전년대비 무려 120.6%나 대폭 증가할 것으로 보여진다. 전체 수출물량에서 시멘트와 크링카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의 시멘트 우위에서 금년은 다시 크링카 우위로 회귀하는 수출 양상에 변화가 있었던 한 해였다.〈표-8〉

2010년 사별 수출실적은 크링카 수출 포함 동양 1,907톤(108.2% ↑), 쌍용 3,901천톤(32.6% ↑), 라

〈표-7〉 주요국별 수출현황  
(단위: 천톤)

구 분	2009년	2010. 1 ~ 11
방글라데시	539	1,530
미 국	902	1,018
나이지리아	645	988
앙골라	-	492
페 루	-	446
케 나	419	414
일 본	657	390
칠 레	278	347
카메룬	46	263
기 타	1,086	899

\* 주: 크링카 포함

파즈한라 1,481천톤(110.7% ↑), 한일 11천톤(10.0% ↑)으로 모든 업체에서 전년보다 수출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동양은 중남미 지역에 대한 크링카 수출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쌍용은 아시아, 아프리카에 대한 크링카 수출 증가, 라파즈한라의 경우 아시아, 중남미 지역에 대한 크링카 수출이 특히 증가하였다.

시멘트의 수출 형태를 보면 벌크가 2,685천톤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운데 포장은 15천톤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최근 수년간의 국내수요 부진에 따라 2004년 3,420천톤으로 최고점을 찍은 이후 감소세를 지속해온 사멘트 수입은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소폭 감소한 800천톤(3.7% ↓)으로 추정된다. 이중 일본산에 대한 수입은 726천톤으로 전년의 711천톤 보다 2.1% 증가하였으나 중국산에 대한 수입은 74천톤에 그쳐 지난해보다 38.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표-9〉)

한편, 국가별 수입비중은 2001년까지만 하더라도 전체 수입 가운데 일본산의 비중이 10% 미만에 불과했으나, 자국내 수요감소에 따라 수출 확대 차원에서 저가에 판매하고 있는 일본산이 금년에는 90.1%를 차지하며 지난해의 85.6% 보다 비중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 라. 재 고

시멘트는 대규모 설비를 필요로 하는 장치산업이라는 특성으로 생산능력의 변동이 크지 않으며 생산지와 소비지가 원거리에 위치하여 수송에 있어서도 많은 제약이 따르며 수경성을 가지고 있어 보관상의 어려움도 존재한다. 아울러 시멘트 수요는 계절과 건설경기에 따른 변동폭이 심하여 적절한 재고를 생산공장과 유통기지에 나누어 보관하는 제품이다.

〈표-8〉 연도별·품종별 수출현황

(단위: 천톤)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추정)
크 링 카	2,210	2,219	3,494	2,085	4,600
시 멘 트	3,987	4,123	3,006	2,487	2,700
합 계	6,197	6,342	6,500	4,572	7,300

〈표-9〉 연도별·국별 시멘트 수입실적

(단위: 천톤)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추정)
중 국	1,659	1,271	522	120	74
일 본	1,539	1,646	1,463	711	726
합 계	3,198	2,917	1,985	831	800

〈표-10〉 2010년 월별 크링카 및 시멘트 재고 추이

(단위 : 천톤)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크링카	1,764	1,932	2,276	1,957	2,006	2,023	2,017	2,324	2,196	1,843	1,629	1,620
시멘트	1,540	1,639	1,376	1,302	1,436	1,541	1,518	1,674	1,448	1,320	1,415	1,125

주) 11월은 속보, 12월은 추정

〈표-11〉 연도별·수단별 수송실적

(단위 : 천톤, %)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1~10월	
					전년대비	
철 도 운 송	15,182 (29.7)	16,048 (29.6)	17,161 (31.6)	15,807 (31.0)	11,659 (28.6)	87.2
육 상 운 송	15,494 (30.4)	17,290 (31.8)	15,699 (29.0)	14,616 (28.6)	11,645 (28.6)	96.7
해 상 운 송	20,361 (39.9)	20,968 (38.6)	21,366 (39.4)	20,587 (40.4)	17,432 (42.8)	102.5
합 계	51,037	54,306	54,226	51,010	40,736	96.0

주) ( )는 수송분담비

금년의 시멘트 재고추이를 보면 전년말 이월재고는 1,421천톤으로 금년의 공급이 48,200천톤(수입 800천톤 포함), 수요가 48,500천톤(수출 2,700천톤 포함)으로 예상되어 연말재고는 전년 동월보다 감소할 것으로 보여진다.〈표-10〉

## 마. 수 송

금년 10월까지의 시멘트 수송실적은 전년동기대비 4.0% 감소한 40,736천톤으로 이를 수송수단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선박이 17,432천톤을 기록하여 수송우위를 점한 가운데 철도가 11,659천톤, 육송이 11,645천톤을 수송한 것으로 나타났다.〈표-11〉

이 가운데 철도의 수송량은 지난해와 비교할 때 1,706천톤(12.8%) 감소하여 육송의 392천톤(3.3%) 실적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큰 폭의 감소를 보였고 해송은 금년중 59.0% 늘어난 수출에 힘입어

지난해 동기간 보다 421천톤(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년은 특히 8월부터 철도전환교통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녹색성장 정책에 따라 철도수송이 강조되는 분위기였음에도 철도수송이 가장 크게 감소를 보여 이 부분의 정부 유인책이 수송량 증대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보다 과감하고 현실적인 운임 인하 제도의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진다.

매년 연례행사처럼 나타나던 화물연대의 운송거부는 크게 이슈화되지 않고 5월중 1일 경교파업으로 마무리되었으며 철도노조 또한 지난해에는 8일간의 파업으로 철도운송에 큰 지장을 주었으나 금년은 총파업 예고 속에서 다행이도 노사협상이 결실을 보여 이로 인한 업계의 피해가 없는 한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내수부진으로 수송량이 감소하는 추세로 업계의 물류비 절감에 대한 노력과 관심이 더욱 필요하다고 하겠다. ▲